

전북대 변재원 박사, 국외연수 지원사업 선정

전북대학교 변재원 박사(화학공학부)가 기초연구사업(박사후 국외연수)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신진 연구자의 연구 활동 유지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것으로, 해외 유수 대학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변재원 박사는 지난 2018년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에도 선정돼 박사과정 등록금과 학술활동비 등을 2년 동안 지원받아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 분야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 사업 선정으로 변 박사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1년 동안 파견돼 바이오매스 유래 친환경 수소 생산 및 수송 통합 기술 타당성 평가 연구를 수행한다. 이 연구과제는 탄소중립 시대의 구축의 원천 기술로 경제·환경성이 우수한 '바이오매스 활용 수소 생산 및 액상유기 수소 운반체 (Liquid Organic Hydrogen Carrier: LOHC) 활용 수소 수송 통합 기술'을 개발하고 타당성 평가를 통한 최적 기술을 제안하는 연구다. /정은성 기자



남원 인월면, 전주민들에게 마스크 배부

남원시 인월면(면장 이은주)은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에게 KF94 마스크 2만7,500장을 주민회합을 담당하는 서한문을 전주민에게 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최근 인월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인월면역에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 관광객의 발길이 줄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한 것이다. 남원시는 인월면의 코로나19 조기확산 차단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이은주 면장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조기 종식 되기를 희망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수칙을 준수하면서 서로 만날 수는 없지만 서로 마음은 가까이 따뜻하게 화합하며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우수부서 '으뜸도정상' 시상

도, 전북을 빛낸 5개 부서 선정

전북도는 지난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4월 중 탁월한 업무성과로 전북의 위상을 드높인 5개 부서를 선정하고 이달의 으뜸 도정상을 시상했다.

도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극대화한 5개 부서에 대해 내부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최우수부서에 투자금융과, 우수부서에 신재생에너지과, 사회적경제과, 산림녹지과가, 농업정책과가 선정됐다.

특히, 투자금융과는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투자금융과는 '전북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지동지용협기설립, 한국 신단공 등 유관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산업단지 건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기업 유통을 위해 추진단을 구성해 노력한 결과 쿠팡(주) 외 4개 기업을 유치했다.

이는 1,300억 원 투자와 직간접 2,500여 명 고용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농협 시너지협의회, 창립60주년 기념 '농촌일손돕기'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범농협 시너지 협의회원과 함께 지난 14일 익산 여산농협과 공동육묘장을 찾았습니다. '농협 창립 60주년 기념' 30번째 봄 레이 일손돕기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일손돕기는 전북농협 시너지 협의회 회원 20여명을 비롯해 박병철 노조위원장, 이종립 익산시지부장, 정우장 여산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친목을加深하고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통해 농촌을 살피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일손돕기는 함께하는 일손돕기, 행복한 농업농촌! 60주년 기념으로, 전북농협 시너지협의회, 익산시지부, 여산농협 부서였다.

/김윤상 기자



전북체고 태권도부, 43년만에 협회장기 종합우승

전북체육고등학교 태권도부가 전국대회 정상에 올랐다. 지난 14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태백에서 열린 제51회 대전태권도협회장기 전국 단체 대항 태권도대회'에서 전북체고가 남고부 단체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체고가 협회장기 대회 우승을 차지한 건 무려 43년만이다.

전북체고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종합우승으로 전북체고 장정윤 지도자는 지도자상을 받았다.

/정은성 기자



이웃사랑의사회, 노송동 모자세대 자녀에 장학금

(사)이웃사랑의사회(이사장 최영태, 회장 이재은)는 지난 14일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주민센터에서 관내 저소득가정 자녀 2명에게 장학금 64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을 전달받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명은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 원씩 1인당 3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사)이웃사랑의사회는 전주시 의사회 소속 사랑나눔회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사들이 설립한 봉사단체다.

최영태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성실히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추진했다"며 "이번 전달식뿐 아니라 꾸준히 주변의 이웃들을 돋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문구 노송동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노송동의 어려운 가정에 관심을 가져 준 이웃사랑의사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팔복동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동장 김인택)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정애)는 지난 14일 독거노인 32세대에 열무김치 100kg을 지원하는 '벗과 맛을 벼루린 팔복동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팔복동 새마을부녀회는 지역이동센터 간식 나눔, 경로당 청소 봉사, 마을 환경정비활동 등 꾸준히 지역을 위해봉사하는 단체로, 매년 명절마다 이웃돕기 행사를 펼쳐 팔복동에 거주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정애 회장은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 어르신들 건강이 상하실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 김치를 맛있게 드셔주시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www.jmci.com
등록번호 전북 가00616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8-6874
인후지사 246-6865
010-2333-4791
사천지사 272-9417
호지지사 010-8845-9935

종로지사 010-988-6874
인후지사 246-6865
송천지사 256-2104
팔복지사 256-6844
군산지사 010-678-0088
의성지사 688-9923

2009년 11월 23일 농·축·의약
(주)50912 전주시 완산구 가린내로 222 4층 (서노송동)

※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위드 앤 씨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